

스노드롭소프트

독자적 기술로 OS 강자를 꿈꾼다!



마음 깊이 두고 조금씩 실천해가는 '부지런함과 희생'의 결과는 뭘까? 여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독자적 기술로 만든 컴퓨터 운영체계를 갖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를 있게 한 열정과 패기에 SVI의 노하우와 경험을 더해 더욱 새롭고 알찬 미래를 그리는 스노드롭소프트(대표 이상언)를 만났다.

“컴퓨터 운영체계의 하나인 커널(커널명 HAX)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1년 11월 MPU (Micro-Processing Unit)용으로 개발된 OS/ef라는 커널을 세상에 선보인 이상언 대표의 말이다. 이 커널이 2003년 스노드롭소프트를 창업한 계기가 되었다. 창업한 해 7월에 HAX는 OS다운 면모를 갖추었는데, 분리된 형태의 스케줄러와 Runtime라이브러리 및 시스템콜과 이벤트 세마포 등의 쓰레드 동기화의 지원이 가능해진 것. 또한 디바이스지원도 드라이버 형태로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디바이스를 OS에서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으며 디바이스를 제어함으로써 OS의 사용용도가 넓어졌다. 이때 지원된 디바이스는 이더넷, 적외선통신(IrDA), UART, 핸드폰용 벨소리침등이 있었다. HAX의 버전은 HA3로 올라갔다.

“2003년 11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을 꺼내는 이 대표. HA3로 제 1회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때이다. 이를 계기로 세상에 HAX의 이름과 회사이름이 지면에 소개되었고 수상식에 즈음하여 주식회사 스노드롭소프트도 설립 되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5년 4월 '유비쿼터스 가전 제품을 위한 소형 RTOS' (일명 UBOS)가 정보통신부 우수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이로써 스노드롭소프트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HAX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에 더해 2006년, 우수신기술 과제 종료 후 평가에서 UBOS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정보통신 IT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정보통신부 IT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HAX는 '가전OS'라는 과제명으로 상용화작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저희는 이제껏 외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고 R&D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 대표.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외부용역개발과 R&D의 병행이었다. “아직 이 결정의 성패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R&D에 매진했다면 현재 스노드롭소프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신에 찬 이상언 대표의 말이다. 외부용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양한 회사와 담당자를 알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몸소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체제(OS)를 보유하고 있는 스노드롭소프트는 삼성전자의 모바일제품 및 SKT의 서비스 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멀티미디어기술을 갖게 되었다.

이 대표가 SVI를 알게 된 건 벤처기업협회 메일링서비스를 통해서였다. SVI의 장점으로 '편의 시설'과 '경영에 있어 선배 기업인이나 인큐베이터 관계자와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직원들과 이야기하기 힘든 경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점이 많은 힘이 됩니다.” 대답 속에 SVI family를 대하는 친근함이 묻어난다. 요즘 스노드롭소프트는 가전OS의 개발과 이를 제품에 채용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유관된 업무를 용역 받아, 신뢰와 레퍼런스 등을 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함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거침 없이 많이 버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 속에 패기와 솔직함이 가득하다. 한 여름, 계절보다 뜨겁게 미래 OS계를 달굴 주역을 만난 날 첫 마음에 담긴 열정과 패기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